

울산대 교수협의회보

제 48 호

2026년 6월

발행인 정종원
편집인 박진모, 차수원, 신소희
발행처 울산대학교 교수협의회

- 교수협의회 회장 인사	...	1
- 2026학년도 1학기 정기총회 회순	...	2
- 교수협의회 활동보고	...	3
운영위원회 활동		
교수평의회 활동		
대학평의회 활동		
- 2026학년도 1학기 신입교수 명단	...	21
- 2026년 8월 정년퇴임교수 명단	...	22
- 제23대(25.3-27.2) 평의원 명단	...	23

울산대학교 교수협의회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11호관 306호
052) 259-2662 / uouprof@gmail.com

〈교수협의회 회장 인사〉

존경하는 울산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26학년도 1학기 정기총회에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를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는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것은, 우리 대학과 교수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열어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학기 교수협의회는 교원 실태 및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한 주 동안 이루어진 조사였음에도 소속과 직위를 막론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학교현안에 대한 가감없는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응답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 주셨습니다. 임금이 올랐으면 한다는 말 뒤에는 ‘대학교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고, 연구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 뒤에는 ‘연구 의욕을 유지하며 학생을 잘 길러내고 싶다’는 교육자의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트랙제 전환이라는 전례 없는 학사 개편 속에서 수업시수 초과, 분반 폭증, 행정 혼란을 감당하며 학생들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들, 소인수 강좌 폐강의 불안을 안고도 전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버텨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신입교원으로서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이 대학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교수협의회가 앞으로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원의 처우와 복무 여건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소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기본급 조정, 초과강의 수당의 현실화, 삭감된 연구 지원제도의 대안 마련과 같은 구체적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트랙형 교육과정 운영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트랙제를 되돌릴 수 없다면, 교원들이 최소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협의회는 트랙 폐지 요건, 트랙별 정원관리 방안, 소인수 강좌 폐강 기준의 한시적 완화, 대형 강좌 운영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본부는 트랙제의 장기 운영 방향을 교원 사회에 조속히 공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설문 응답 곳곳에는 대학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 정책이 ‘상부하달식으로,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다’, ‘본부 행정이 학생과 교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불편함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대학 공동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학교 정책의 수립 과정에 교원 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사업과 라이즈 사업이 교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전임교원 충원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원을 대학 경영의 수단이 아닌 대학 발전의 주체로 존중하는 자세와 문화가 필요합니다. 대학의 발전과 교원의 처우 개선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교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때,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학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본부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전향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강하게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교수협의회회의 존재이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대학을 가꾸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라면, 이 대학을 교원이 떠나지 않는 곳으로, 학생이 자랑스럽게 다니는 곳으로,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정기총회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제23대 울산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종원

2026학년도
1학기
정기총회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오후 4시

장소 : 비전홀

안건 : 교수협의회 활동보고

울산대학교
교수협의회

- 총회 회순 -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회장인사
4. 총장인사
5. 신임 및 퇴임교수 소개
6. 교수협의회 활동보고
운영위원회 활동
교수평의회 활동
대학평의원회 활동
7. 질의응답
8. 기타 부의되는 안건
9. 폐회

교수협의회 활동보고

운영위원회 / 교수평의회 활동

* 모든 교수협의회 회의록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https://ncms.ulsan.ac.kr/kyohyup>)에서 로그인 후 보실 수 있습니다.

▷ 26. 3. 9. 제1차 운영위원회

1. 교내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규정 공유 건

- 한양대학교 사례를 참고하여 교수협의회 추천 위원을 위원회 임명 시 본부가 고려하도록 하는 운영 방안을 논의함.
- 학내 현안에 대한 교수 참여 확대를 위해 교무팀에 교내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규정 자료를 요청하여 26.02.10. 공문으로 회신 받음. 자료에는 위원회명, 주관부서, 관련 규정, 당연직 위원 구성 내용이 포함됨.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교협 회장단이 중요 의결 참여 필요 위원회를 1차로 검토 한 후, 교협 운영위원단이 추가 검토하여 추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2. 교원복지 건

1) 초과강의수당 인상안

- 초과강의수당 인상 수준 검토를 위해 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실제 초과강의를 수행하는 교수 현황 및 인근 사립대 수준을 조사하여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현행 강사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3만원 까지 인상 필요함. 2학기부터는 변경된 수당이 반영되도록 이번 학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직원노조 임금단체협상에서 호봉급 78,000원 인상(약 1.9%) 합의된 사안을 공유함.

2) 교수조합 설립 관련

- 지난 학기 안양대학교 교수노조 위원장과 본교 직원노조 위원장을 초청하여 정책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학 내 노조의 특수성 등 설립·운

영 방향성을 논의함.

-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수조합 설립에 참여 의사가 있는 교수 섭외 및 교원복지, 트랙제 학사운영 등 교협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3. 전공트랙 자율선택 운영 건

- 이번 학기 트랙제 시행으로 학생 쏠림 현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함.
- 대규모 강좌와 일부 전공에서 강의실 수용 한계, 실습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함.
- 일부 학과는 제한된 수강인원에 따라 학생이 학과조교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강신청하고 확인절차가 필요해, 수강신청 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함.
- 트랙 변경 시, 기존 트랙의 필수과목이 변경 트랙에서는 일반과목으로 바뀌는 등 졸업요건 미충족 가능성이 있으며, 지도교수 상담 관리가 복잡해지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정 정비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됨.

4. 연구지원 건

- 현재 융합지부 공동기기센터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글로벌센터 1층에 공동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작년 연구과제 TF 예산 축소분은 올해 정부재정 지원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산학협력단 주최 연구진흥지원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연구지원 원복은 없으며, 실질적인 개선 논의보다는 정보 공유 중심으로 진행되어 올해 위원회 운영 계획은 없다고 함.

▷ 26. 3. 23. 제2차 교수평의회

1. 초과강의수당 인상 건

1) 본부 측 초과강의수당 인상안

- 교무처장은 전임교원 책임시수 8시수에서 추가 3학점마다 23,000원

→ 28,000원 → 33,000원으로 구간별 상승을 반영하여 최대 9학점까지 초과강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함.

- 교협 측은 현행 17,000원 시작점이 낮고, 구간별 금액 인상 폭도 충분하지 않아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33,000원에서 시작해 점차 감소하는 방식의 구조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2) 전임교원 초과강의 현황

- 교무처장은 전체 강의 중 초과강의를 전임교원 22%, 비전임교원 22%이고, 나머지 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56% 중 일부를 전임교원이 담당할 경우 교육의 질과 운영 효율 측면에서 학교에 이점이 있을 것이며 이는 초과강의수당 인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함.
- 교협 측은 현실적으로 기본 8시수에 초과강의를 더해 17시수까지 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임교원이 강사를 대체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초과강의수당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3) 타 대학 대비 지급 수준

- 교무처장은 부울경 지역을 비롯한 타 대학의 경우 책임시수는 9시수이며, 초과강의수당은 22,000원 선이므로 현재 우리 대학에서 논의 중인 인상안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함.
- 교협 측은 단순한 금액 비교보다는 전임교원의 실제 부담과 과거 낮은 수당으로 강의를 담당해 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4) 책임시수 관련

- 교무처장은 2005년 자료를 통해 책임시수가 기존 9시수에서 현재의 8시수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했으며, 9시수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다만 구체적인 변경 사유는 확인 중이며, 당시 임금 인상 대신 시수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함.
- 교협 측은 당시 결정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함. 실기과목 등 시수 산정 방식에 따라 8시수가 실제 8학점과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함.

→ 교무처장은 구간별 인상 구조 및 책임시수 변경 관련 의견 등 논의된 사항을 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초과강의수당 인상과 책임시수 조정

문제를 분리하여 검토할지 여부를 포함해 추후 재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2. 기타 부의되는 안건

- AI tool 구독 지원 관련(월 3만원 전임교원 260명 기준 약 1천만원)
 -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교 전체 AI tool 구독이 3월 20일부로 종료되었으며, 향후 구글을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
 - 라이즈사업단 예산 활용 가능성을 언급함. 재학생 전체 대상 5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비용 절약을 위해 토큰 방식으로 사용 통계 기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함.

▷ 26. 4. 6. 제2차 운영위원회

1. 교원복지 건

1) 교원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관련

-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 문항은 인사·복무·복지,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 연구지원 체계, 교수조합 추진위원회 참여 의사, 기타 애로사항 등으로 구성됨.
- 4월 5일 기준 총 69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미래엔지니어링 융합대학이 52%(3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직위별로는 조교수가 45%(31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재임용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중간 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15년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 문제, 초과강의수당의 즉각적인 인상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기됨. 또한 교내 연구비 및 논문게재장려금 삭감에 대한 반발과 원복 요구, 학회 발표 논문의 실적 미인정 문제, 연구공간 부족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나타남.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신입교원 실험실 확보의 어려움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연구활동이 제도 미비로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됨.

-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인수 강좌 운영에 따른 교수의 경제적 손실 문제가 언급되었으며, 글로벌사업(2년 한시) 기간 동안 책임시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의됨.

2) 초과강의수당 인상 관련

- 트랙제 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되는 학기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기에는 교원의 초과강의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따라 본부 측에서 제시한 초과강의수당 인상안을 우선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함. 해당 인상안은 초과강의에 대해 3학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최초 3학점은 23,000원, 추가 3학점은 28,000원, 추가 3학점은 33,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며 최대 9학점까지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올해 트랙제 운영 결과 및 초과강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상 수준에 대하여 재논의하기로 함.

2. 교내 참여 필요 위원회 검토 건

- 임원 회의를 통해 검토한 참여 필요 위원회를 공유하고 운영위에서 추가 검토함.
- 현재 참여 중인 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위원회 중 교원업적평가대학교평가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기획위원회, 복무평가위원회, RISE사업운영위원회, RISE사업추진위원회, 산학기획위원회,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전산화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12개 위원회에 대하여, 각 위원회의 전문 분야에 적합한 후보 위원을 단대별로 추천받아 본부 측에 임명 요청할 예정임.

3. 연구과제여비기준지침 개정 건

- 4월 1일 부 연구과제여비기준지침 개정(안) 관련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반영한 지급기준 현실화로 지급기준은 소폭 상향된 것으로 확인됨. 다만, 국내여비 지급 구분에서 기존 제3호 가목(조교수 이하의 교원 등)과 나목(학생연구자)로 구분되어 있던 기준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조교수 여비가 학생연구자 수준으로 책정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연구과제여비기준지침」 개정(안)_2026. 4. 1.부(부분 개정)

- 본교 「여비규정」 개정안 준용
- 「공무원여비규정」을 반영한 지급기준 현실화

1) 국내여비 지급 구분표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해당자	해당자
제1호	총장	총장
제2호	가. 부총장	가. 부총장
	나. 부교수 이상의 교원, 팀·실장 이상의 직원	나. 부교수 이상의 교원, 팀·실장 이상의 직원
제3호	가. 조교수 이하의 교원, 비전임 교원(연구교수 등), 팀·실의 일반 직원, 학부(과)·전공·연구소(센터) 소속 연구원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조교수 이하의 교원, 비전임 교원(연구교수 등), 팀·실의 일반 직원, 학부(과)·전공·연구소(센터) 소속 연구원, 학생연구자 등)
	나. 제1호, 제2호, 제3호 '가' 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학생연구자 등)	

2) 관내여비(캠퍼스간 이동) 부분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산업단지캠퍼스(구.산학융합캠퍼스)	10,000	5,000	개인차량이용 시, 1대당 1회 / 본교 여비 기준 지침 준용

3) 국내여비 지급기준액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식비(1식)	10,000원	12,000원	식비 현실화
일비	20,000원	25,000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4) 국외여비 지급 구분표 및 나라별 등급 구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26. 4. 20. 제2차 교수평의회

1. 교원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보고 건

-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평가 참여 대상자 253명 중 103명(41%)이 응답함.
- 설문 결과, 교원 처우 및 임금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초과강의 수당 현실화와 연구지원 축소 문제가 주요 건의사항으로 확인됨.

-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필요, 행정업무 과중 및 전임교원 부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함께 확인됨에 따라, 행정인력의 적정 규모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교수조합은 설립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참여 의사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최소 참여 인원 확보 시 교협 차원의 후속 추진 여부(노조 설립 절차 추진, 전문가 자문 및 예산 지원 방안 등)를 결정하기로 함.
- 지난 수요일 교협 회장단과 산학협력단장 간 미팅에서 연구지원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간접비 인상분은 내년부터 반영 예정으로 올해 즉각적인 개선은 어렵고 개인 차원이 아닌 공동 지원 중심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 공유됨. 또한 일부 교수님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 인해 행정 인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후 교학부총장 면담을 통해 트랙제 운영과 관련해 글로컬 사업 이후 기존 학과제로의 원복은 어려우나, 학부 구조 및 트랙 간 불균형에 대한 개선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함.
- 해당 설문 결과는 지난 월요일 학장단 간담회에서도 중간보고 형태로 공유되었으며, 중간 및 최종 결과 간 큰 방향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초과강의수당 인상 건

- 본부 측에서 제시한 초과강의수당 인상안에 대한 1차 평의회 논의 이후, 초과강의수당과 교원 책임시수 상향 조정(현8학점→9학점) 및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제재 조치 연계 등이 본부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함(4월 15일 교협 회장단 및 교학부총장 면담).
- 해당 안건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추진방향 및 최종 결정 시기에 대한 교협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임.

3. 교내 참여 필요 위원회 검토 건

- 교내 170여개 위원회 중 추가 참여가 필요한 12개 위원회를 선별함.
- 각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야 교수를 단대별로 추천받아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산학·예산·전산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관련

분야 교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

코드	위원회명	주관부서	관련규정
10193	교원업적평가대학교평가위원회	교무처 교무팀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6조
10256	교육과정위원회	교무처 학사관리팀	교육과정위원회 규정(4-0-27) 제3조
10255	기금운용심의회	재무처 회계팀	사립학교법 제32조의 3 울산대학교 기금운용심의회규정 제3조
10262	기획위원회	기획처 기획평가팀	기획위원회(4-0-24)
10343	복무평가위원회	교무처 교무팀	전임교원 복무평가 지침
10338	사업운영위원회	RISE사업단 총괄행정지원팀	울산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 규정(5-1-48)
10339	사업추진위원회	RISE사업단 총괄행정지원팀	울산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 규정 제7조(5-1-48)
10079	산학기획위원회	연구지원부 산학기획과	산학기획위원회규정(4-0-37)
10078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	5-3-2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
10192	예산심의위원회	재무처 예산팀	예산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안)
10306	전산화위원회	정보통신원 정보인프라팀	울산대학교 전산화위원회 규정
1004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교무처 교무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4

4. 연구과제여비기준지침 개정 건

- 연구과제여비기준지침 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본교 여비기준지침 개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임을 확인함.
- 여비 지급 수준 등 일부 항목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면서도 공무원 급여 인상 등 다른 요소는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기준 적용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기준 적용의 일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규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됨.

▷ 26. 5. 4. 제3차 운영위원회

1. 대학 인증평가 대응 건

- 대학 인증평가에서 교수협의회 회장이 대표로 참여하는 사항이 공유됨.
- 타 대학 대비 교육과정·교수학습·연구지원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변화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인증평가 결과와는 관계없이,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 초과강의수당 인상 건

- 본부에서 책임시수를 기존 8학점에서 9학점으로 상향하고, 초과강의수당을 17,000원에서 3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공유됨.
- 당초 초과강의수당 인상 요구에서 출발하였으나, 본부 측에서 책임시수 조정이 함께 거론되면서 두 사안이 연계된 배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
- 전공별로 초과강의 수행 비율 차이에 따라 일부 교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또한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함께 논의되었으며, 교육과정 개편 등 구조적 원인과 책임시수 미달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한 개인 책임 사례를 구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책임시수 상향 및 초과강의수당 인상 건에 대하여 본부 주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언급됨. 공청회 관련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된바 없음.

3. 교직원 상조회 운영 현황 논의 건

- 교수들의 문의를 계기로 상조회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규약에 따라 전 교직원이 임용 시 자동 가입되며 급여 원천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 연간 수입(약 1억원) 대비 운영 현황이 구성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상조금 지급 기준이 불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됨.
-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상조회 운영위원회 기능 정상화, 예·결산내역 및 신청 절차 안내 등 정보 공개 강화, 상조급여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등 개선 방안이 논의됨.

4. 교내 위원회 참여 확대 관련 교수 추천 건

- 선별된 12개 교내 위원회와 관련하여 각 분야 전문성과 객관적인 판단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한 후보군 추천이 필요함. 위원 교체 시점에 맞춰 교협 추천 인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단대별 후보군을 사전에 확보하기로 함.

5. 기타 부의되는 안건

- 현 총장의 장기 재임(12년)에 따른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협 회칙(제6조 7, 제19조)에 근거한 총장 후보 추천 절차 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다음 학기 총장 추천 후보를 선정하여 정기총회에 안건 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임.

구분	내용
제6조 (권한)	제2장 전체 교수협의회 제6조(권한) 전체 교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생략... 7. 총장후보 추천
제19조 (총장후보의 선거)	제5장 선거 제19조(총장후보의 선거) 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26. 5. 18. 제3차 교수평의회

1. 초과강의수당 인상 건

- 본부 측 내부 검토안(책임시수 8→9학점 상향 및 초과강의수당 17,000 →34,000원 인상)을 공유함. 다만, 해당 안은 교무회의 상정 이전 단계로 공식 확정안은 아님을 설명함.
- 책임시수 상향은 연봉 체계와 연계하여 논의할 사안이며, 초과강의수당 인상과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책임시수 조정은 대학의 정체성(교육 중심 vs 연구 중심)과도 연결되는 사안으로, 타 대학과의 비교 준거 설정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대학 기관인증평가 과정에서 대학 규모 대비 교직원 수 부족 문제가

- 지적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언급됨.
- 또한 전임교원 중 약 15%가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됨.
- 향후 교무처의 공식안 확정 후 단대별 설명회가 계획되면, 교협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2. 교내 위원회 교수 참여 확대 건

- 교내 주요 위원회에 교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관련해 본부 측과 협의를 진행함.
- 교육과정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무 교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교육 중점 교원의 위원회 참여 필요성도 건의되었으나, 교협 회칙상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위원 임기 만료 시점을 고려하여, 교협 추천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3. 교직원 상조회 운영 정상화 건

- 상조회 규약상 명문화된 운영위원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총무처장에게 정상 운영을 요청함. 또한 상조회 신청 절차를 비롯한 교직원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문 작성 및 배포를 요청하기로 함.

4. 교협 총장 후보 추천 절차 추진 건

- 현 총장 임기 만료(내년 2월)를 앞두고 교협 회칙상 총장 후보 추천 권한 행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2학기 중 총장 후보 추천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하며, 세부 방식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26. 6. 1. 제4차 운영위원회

1. 기관인증평가 관련

- 대학 기관인증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한 정보 공유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획처에 자료를 요청함. 본부 측은 6월 30일 평가 결과 발표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회신하겠다고 답함.
-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등 연구지원 체계와 교육과정 운영, 소규모 전공 및 트랙 운영방식 등 학사제도 전반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일부 전공 트랙 운영에서 교육과정 변경 및 모집단계에서의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학생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트랙제 운영 시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됨.

2. 교협 총장 후보 추천 절차 논의 건

- 교협 회칙상 총장 후보 추천 권한 및 절차 관련 추진 방향을 논의함.
- 교협 차원의 직접적인 후보 추천 절차는 후보군 발굴 등 현실적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특정 후보 선정보다는 교수사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난 4월 실시한 교수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총장 연임 인식, 대학 운영 평가, 차기 리더십 기대, 대학 발전 요구사항 등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본부에 전달하는 방안이 논의됨. 총회 등 공식 회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본부와 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3. 기타 부의되는 안건

- 의과학대학원 의과학융합전공 신입 교원의 소속 및 교협 회원 범위에 대해 교무팀 확인 내용을 공유함.
- 작년 및 올해 신규 임용된 교원 총 3명은 아산의학관(울산 동구 소재)에 근무하고 있으며, 의대 교협이 아닌 본교 소속으로 구분됨을 확인함. 이에 해당 교원들은 정기총회 참석 및 신입 교원 기념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안내하기로 함.

대학 평의회 활동

* 모든 대학평의회 회의록은 '울산대학교(ulsan.ac.kr)>대학소개>기타>홈페이지 의무공개 대상>대학평의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6. 1. 28. 2025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회

참석 의원: 정종원, 차수원, 박주식, 안중한, 백이든, 홍지훈, 김진수, 장재민

(재적 의원 12명 중 8명 참석)

간사가 재적의원 12명 중 8명 참석으로 2025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회가 성원되었음을 선언함. 「대학평의회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장이 급한 해외출장으로 인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함.

1.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안)

- 학사관리팀 최재영 차장이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안)에 대해 설명함
- 김진수 의원이 추가 보완된 학사제도에 대해 질의하고, 최재영 차장이 이에 대해 설명함
- 김진수 의원이 과거 전공제도 학생이 복학할 때, 트랙제로 변경될 때 학점을 더 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이 되어있는지 묻고, 최재영 차장이 이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교필, 교선 선정 기준에 대해 묻고, 최재영 차장이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기준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고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트랙제 운영 문제점에 대해 보완 계획을 묻고, 최재영 차장이 이에 대해 설명함
- 부의장이 트랙제를 운영하는데 피해를 보는 구성원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함. 본 안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함

▶ 원안대로 자문됨

2.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산대학교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재무경영팀 이광원 팀장이 2025회계연도 제1회 울산대학교병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증액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묻고, 이광원 팀장이 의대 운영 지원비가 큰 부분이라고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의과대학 운영에 대한 대학, 학교, 법인의 비율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안종한 의원이 부연 설명함
- 부의장이 본 안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함

▶ 원안대로 자문됨

3.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울산대학교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재무경영팀 이광원 팀장이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함
- 부의장이 상여금 삭감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광원 팀장이 이에 대해 급여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 수치상 오해가 있다고 설명함
- 안종한 의원이 흑자를 유지, 수익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 묻고, 이광원 팀장이 이에 대해 설명함
- 부의장이 흑자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이며, 병원에서 구성원들의 급여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함. 부의장이 본 안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함

▶ 원안대로 자문됨

4.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산대학교)

- 예산팀 이채훈 대리가 2025회계연도 제2회 울산대학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묻고, 안종한 의원이 이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기금 적립 규모와 사용처 등을 묻고, 예산팀 이채훈 대리가 이에 대해 설명함

- 부의장이 학생지원금 삭감에 대해 묻고, 예산팀 이채훈 대리가 이에 대해 설명함
- 부의장이 본 안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함

▶ 원안대로 자문됨

5.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울산대학교)

- 예산팀 이채훈 대리가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국고지원금 반납금액 규모, 건축 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고, 박주식 의원 및 안중환 의원이 이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연구비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묻고, 안중환 의원이 이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연구비 예산이 의과대학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본교 연구비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고, 연구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실제 교수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함
- 김진수 의원이 건축기금 적립 사유, 등록금 예산 증가분에 따른 장학금 추가 배정 및 학과운영비 증액 여부, 예비비 사용처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 이채훈 대리가 이에 대해 설명함
- 김진수 의원이 등록금 예산 증가에 따른 학생의 체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한 의견 개진 가능 여부를 묻고, 박주식 의원이 추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 가능하다고 설명함
- 김진수 의원이 학생지원비 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 이채훈 대리가 이에 대해 설명함
- 부의장이 학생식당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위해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 부의장이 본 안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함

▶ 원안대로 자문됨

6. 「울산대학교 학칙」 개정(안)

- 박주식 의원이 울산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는지 질의하고, 박주식 의원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함

- 부의장이 본 안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함
- 김진수 의원이 학과 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박주식 의원이 이에 대해 설명함

▶ 원안대로 심의됨

7. 「일반대학원 학칙」 개정(안)

- 박주식 의원이 울산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학점 인정 체계에 대해 질의하고, 박주식 의원이 이에 대해 설명함
- 부의장이 본 안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함

▶ 원안대로 심의됨

8. 백이든 부의장이 2025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 26. 4. 21. 2026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참석 의원: 정종원, 박진모, 박주식, 안중환, 백이든, 이대원, 박형도, 홍지훈, 김진수

(재적 의원 12명 중 9명 참석)

간사가 재적의원 12명 중 9명 참석으로 2026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되었음을 선언함

1. 2026년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이대원 의장이 매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종원 의원을 의장으로 추천함
- 정종원 의원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이대원 의장 연임을 추천함
- 이대원 의장이 부의장으로 백이든 부의장 연임을 추천함

- 참석 의원 전원이 동의함

▶ **대학평의회 의장은 이대원 의장, 부의장은 백이든 부의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함**

2. 2025회계연도 울산대학교병원 결산(안)

- 울산대학교병원 재무경영팀 이광원 팀장이 2025회계연도 울산대학교병원 결산(안)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법인전출금, 의대운영전출금이 병원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지와 자문 컨설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재무경영팀 이광원 팀장이 상세히 설명함
- 박주식 의원이 투자성격의 비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재무경영팀 이광원 팀장이 상세히 설명함
- 박진모 의원이 의과대학 교수 인건비 구분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재무경영팀 이광원 팀장이 상세히 설명함
- 안중환 의원이 투자 계획 등이 있는 경우, 향후에 회의자료에 첨부를 요청함

▶ **원안대로 자문됨**

3. 2025회계연도 울산대학교 결산(안)

- 울산대학교 회계팀 김인규 팀장이 2025회계연도 울산대학교 결산(안)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기부금 예산 중 글로벌대학사업 외부기부금, 지산학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회계팀 김인규 팀장이 상세히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글로벌대학사업 출범 시 지산학협력기금이 천억원 규모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지산학협력기금의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박주식 의원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의 연구지원제도 축소에 따라 교비연구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비연구비 예산 편성 주체와 의대와 본교의 비중, 상세 내역 등에 대해 질의함. 또한, 예산 편성 주체에 대해 정종원 의원이 산학협력단과 본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예산 편성 시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를 요청함

- 정종원 의원이 본교 및 각 병원 인건비 지급하는 수와 지급 비율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회계팀 김인규 팀장이 상세히 설명함
- 박진모 의원이 임의로 조정 가능 항목과 고정 항목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회계팀 김인규 팀장이 상세히 설명함
- 백이든 부의장이 명시이월이 행정 프로세스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구매·회계·기획 등 절차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함

▶ 원안대로 자문됨

4. 2027학년도 정원 조정(안)

- 박주식 의원이 2027학년도 정원조정(안)에 대해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SW중심대학사업단 만료시점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박주식 의원이 상세히 설명함
- 정종원 의원이 대학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SW중심대학사업단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대원 의장이 평가 순위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박주식 의원이 상세히 설명함
- 백이든 부의장이 아산아너스칼리지 증원 부분에 대해 위험 부담도 크다고 설명하면서, 다음 대학평의원회 회의에는 정원 조정에 대한 인력, 모니터링 계획도 요청함
- 정종원 의원이 대학이 큰 부담을 가지고 아산아너스칼리지를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교육과정 등 제반 여건들이 부족해보인다고 설명하면서 관련된 부서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함
- 박진모 의원이 모집유보 인원과 학장들의 평가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박주식 의원이 상세히 설명함

▶ 원안대로 심의됨

5. 이대원 의장이 2026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6학년도 1학기 신입교수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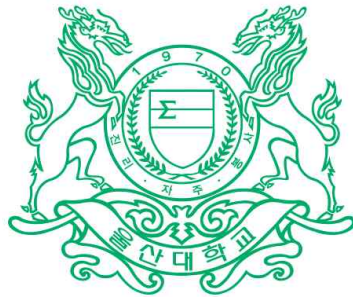
		
박현민 미래모빌리티공학부	김홍원 바이오메디컬헬스학부	한영민 바이오메디컬헬스학부
		
표하림 건축·도시환경학부	임동환 디자인융합학부	박준영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김혁 의과학대학원 의과학융합전공		

2026년 8월 정년퇴임교수 명단

		
<p>김명균 ICT융합학부</p>	<p>이규백 디자인융합학부</p>	<p>이상도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p>

제23대(25.3-27.2) 교수협의회 평의원 명단(26.6.기준)

번호	직 책	성 명	학부/(구)학과·전공	연구실
1	회 장	정종원	교육대학원/교육학과	2085
2	부 회 장	박진모	경영경제융합학부/회계학전공	2807
3	부 회 장	차수원	건축·도시환경학부/건설환경공학전공	2261
4	총 간 사	신소희	스포츠과학부/생활체육전공	2441
5	감 사	도수관	공공인재학부/행정학전공	2708
6	감 사	우민정	스포츠과학부/운동건강관리·생활체육전공	2380
7	미래엔지니어링융합대학회장	임옥택	미래모빌리티공학부/기계자동차공학전공	2852
8	부회장	안대한	ICT융합학부/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2831
9	평의원	권혁남	바이오메디컬헬스학부/의생명과학전공	2397
10	평의원	김성민	미래모빌리티공학부/기계자동차공학전공	2231
11	평의원	윤석준	신소재·반도체융합학부/나노반도체공학전공	2317
12	평의원	이찬현	에너지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2250
13	평의원	박주원	전기전자융합학부/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2190
14	스마트도시융합대학회장	유용현	건축·도시환경학부/건축학전공	2759
15	부회장	이충호	디자인융합학부/시각디자인학전공	2615
16	평의원	김종호	건축·도시환경학부/건설환경공학전공	2855
17	평의원	임선희	디자인융합학부/산업디자인학전공	2610
18	경영·공공정책대학회장	곽영민	경영경제융합학부/회계학전공	2452
19	부회장	강지현	공공인재학부/경찰학전공	2485
20	평의원	이하나	공공인재학부/사회·복지학전공	2812
21	평의원	조재민	경영경제융합학부/글로벌경영학전공	2913
22	인문예술대학회장	노경희	글로벌인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2513
23	부회장	김대수	예술학부/성악전공	1214
24	평의원	김미진	글로벌인문학부/일본어·일본학전공	2544
25	평의원	안동섭	글로벌인문학부/철학·상담전공	2573
26	평의원	황소원	예술학부/피아노전공	1241



울산대학교 교수협의회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11-306

☎ 052) 259-2662

<https://ncms.ulsan.ac.kr/kyohyup>

uouprof@gmail.com



울산대학교 교수협의회